

조선대 교수·교원들 “글로벌 탈락, 총장·이사장 사퇴하라”

교수평의회·교원노조, 교내전산망에 입장 올려
준비 계획과 추진 과정에 심각한 한계 보여줘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올해도 결국 또 실패

조선대학교 교수평의회와 교원노동조합은 지난 17일 "이사장의 이사 총장은 글로벌사업 탈락에 책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교수평의회와 교원노동조합은 이날 교내 전산망에 올린 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글로벌대학 예비지정에서 탈락했다"며 "이번 탈락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대학의 장기적인 발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에서 대학이 제시한 비전과 전략이 국가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조선대학교 이사회와 조선대학교는 "안이한 사고와 형식적 접근은 어떠한 국가적 사업에서도 결코 허

용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총장 이하 집행부는 준비 계획과 추진 과정에 심각한 한계를 보여줬다"며 "지난해 탈락했을 때도 어떠한 인적 쇄신도 없이 진지한 성찰과 적절한 개선대책도 없이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해더니 올해도 결국 실패의 아픔을 구성원에게 안겨주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조선대학교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외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대학 경영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수와 학생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하

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평의회와 교원노동조합은 "집행부와 법인의 책임 있는 행동과 진지한 성찰만이 우리 대학을 진정한 학문의 전당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며 총장과 이사장과의 사퇴를 즉각 촉구했다. 글로벌대학30은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를 목표로 2026년까지 30곳을 선정해 5년간 국고 1천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교육부의 과거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단일 대학 지원액으로는 최대 규모다. 광주지역 대학 중에는 전남대, 광주보건대 연합(대구보건대·대전보건대), 전남에



서는 목포대,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연합이 예비지정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 목포대, 동신대, 원광대, 초당대, 목포과학대 까지 예비지정됐는데 조선대학교는 왜 또 탈락인가 ~ 그러면

이사회는 조선대와는 관련없는 전남대 이사2명과 이화여대교수 등이 존재하고 조선대학교의 기밀이 소리소문없이 다 빠져나가는 상태인 것이다. 이사회의 법인카드 관련 교육부

의 민원이 핵심이고 조선대학교 검찰수사건 불법취업등이 발목을 잡고있어 글로벌대학에 선정이 되려면 이사회 전원사퇴와 임시 이사회가 들어야할 처지가 되버렸다. /이가영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 카 포스카리 베네치아 대학서 '5·18과 광주비엔날레' 특강

“비엔날레는 5·18정신이 뿌리...5·18, 한국 배우려는 열정에 행복”



강기정 광주시장은 1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카 포스카리 베네치아 대학(Università Ca' Foscari Venezia)'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광주비엔날레'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카 포스카리 대학은 이탈리아에서 몇 안 되는 한국학과 학사과정이 개설된 대학이다. /광주시 제공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탈리아 베니스 대학생들과 '5·18과 광주비엔날레'에 대해 공감했다. 강기정 시장은 1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카 포스카리 베네치아 대학(Università Ca' Foscari Venezia)'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광주비엔날레'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카 포스카리 대학은 이탈리아에서 몇 안 되는 한국학과 학사과정이 개설된 대학이다. '광주사람이 겪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과 광주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대학 측의 요청에 따라 강 시장의 특강이 이뤄졌다. 강 시장은 이날 한국학과 학생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자신이 고교 시절 경험한 5·18민주화운동과 광주정신, 이의 가치를 예술로 승화하고자 창설한 광주비엔날레, 의향·예향·미향의 도시 광주 등을 소개했다. 특히 강 시장이 고교·대학 시절에 경험한 5·18의 생생한 증언과 진솔한 이야기에 이탈리아 학생들이 매료, 광주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강 시장은 특강에서 ▲1980년 고립된 광주 ▲광주시민의 공동체 ▲마지막 항쟁의 순간들을 당시 사진을 보여주며 소개했다. 5·18항쟁 이후 그 영향을 받아 정치·사회는 물론 미술·음악·공연 등 문화예술에까지 에너지가 폭발해 '민중예술'이라는 새로운 사조가 개

척됐고, 이러한 에너지를 수용해 마침내 1995년 광주비엔날레가 창설됐다고 5·18민주화운동과 광주비엔날레의 연관성을 설명했다. 강 시장은 "광주비엔날레는 5·18정신을 배경으로 창설돼 올해로 30주년이 됐다"며 "베니스비엔날레와 같이 파빌리온을 운영하지만, 광주비엔날레의 파빌리온은 연대와 다양성을 근간으로, 국가와 도시를 잇는 도시외교의 전령이자 플랫폼으로서 역할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베니스에서 선보이고 있는 '광주비엔날레 30주년 아카이브 전시'와 오는 9월 개막하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도 안내했다. 카 포스카리 대학 학생들은 5·18민주화운동과 광주비엔날레에 대

한 관심이 뜨거웠다. 한 학생은 '5·18의 왜곡·편취가 있는지,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5·18항쟁 이후 15년 만에 특별법이 만들어져 '5·18민주화운동'으로 정의됐지만, 아직도 선거 때마다 정치지형과 이념에 편승해 왜곡·편취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3·1운동, 4·19혁명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길 뿐이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끝으로 "베니스에 한국과 5·18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많아 행복하다"며 "광주는 의로운 도시 '의향',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도시 '예향', 미식가들의 도시 '미향'으로 불린다. 올해 9월 청명한 가을햇살과 함께 제15회 광주비엔날레에서 만나자"고 학생들을 초청했다. /이유빈 기자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가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